

JAST 위한 정보수집 NASA 미공군등 공동으로

미항공우주국(NASA)과 미공군 그리고 MD사와 P&W사등이 공동으로 포괄적 선진조종기술(ACTIVE)을 사용한 F-15 시험기로 차세대통합공격전투기(JAST)의 조종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MD사의 차세대통합공격전투기(JSF)에 대한 제안에는 수직꼬리날개가 없는 추력 변향 노즐에 의해 꺾치고 요(상하좌우 요동)를 감당하는 조종이 가능한 테일레스형으로 되어 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F-15 ACTIVE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고한다.

동기는 세로 축에서 15도, 가로 축에서 10도씩 편향되며 이로 인해 날개의 조종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라더를 쓰지 않고 수직꼬리날개가 없이도 자세를 제어 하면서 자유자재로 비행,

F-15ACTIVE기, 우측상단은 자동 조종 S/W모듈



상승, 강하, 이착륙이 가능한 지를 시험할 것이라고 하여 그 성과가 기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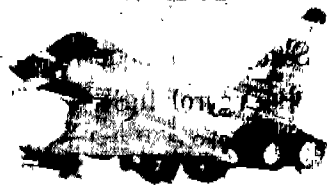
제2단계 진입 유로파이터 시험3호기로

유럽 4개국에 의해 차세대 전투기로 공동 개발되고 있는 유로파이터 2000은 이탈리아의 캄페 데 비행시험 센터에서 시험중이던 개발 3호기(DA3)가 제1단계 시험을 성공리에 끝내고 EJ200-01C 엔진에 의한 제2단계 비행시험에 들어 갔다고 이탈리아 당국에서 발표했다.

유로파이터 2000은 2천년대의 유럽공군용 최신편 전투기로 쓰이기 위해 그동안 지상시험과 내파괴시험을 거치고 지금 비행시험이 계속중에 있다.

이대로 간다면 98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개발에서 비행까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한 탓으로 과연 관계 각국이 얼마나 도입 할 것인가 문제로 되고 있다. 동 전투기는

비행 시험중인 유로파이터



최신의 기술을 구사하는 최우수 전투기를 지향하고 있다.

29대 구입결정 일항공자위대 금년도에

일본 항공자위대는 96년도(96.4 ~ 97.3)에 도합 29대의 항공기를 구입하고 그중 19대를 인수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F-15J형을 비롯 F-4EJ 성능 개량형, 그리고 F-2 전투기의 발주등도 포함되어 있다. 헬리콥터와 F-4등 연습기에도 포함되는데 금년에 발주된 것은 97~98년에 인수할 예정이다.

유사시 위해 개량 미공군, 공중지휘기에

미국 공군은 보잉 E-4B 국가공중지휘관제기를 유사시에 국방장관의 공중작전센터가 되도록 능력을 크게 개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능력개량계획은 지난 1994년 10월 페리 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현재의 E-4B형기는 고품질의 음성 데이터 통신을 제공할 수 없어서 공중 작전

지휘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 부분을 크게 개수할 것이라고 한다.

**블랙박스 설치
미국방장관 긴급명령으로**

페리 미국방장관은 최근 인원 수송임무에 쓰이는 모든 미군 수송기에 즉시 조종실 음성녹음장치(CVR)와 비행자료 기록기(FDR), 그리고 GPS 수신기 등 속칭 블랙박스의 설치를 명령했다고 한다.

이 조치는 앞서 크로아티아의 드브로 프니크에 착륙하려던 수송기가 추락하여 미상무장관등 일행 35명이 전원이 사망한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추락기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한다.

**복좌형 첫 비행
JAS-39 그리펜기**

스웨덴이 개발한 경전투기 JAS-39 그리펜의 복좌형이 첫비행에 성공했다고 스웨덴 당국이 발표했다.

원래 사브 JAS-39 그리펜은 1인승으로 개발되었으나 스웨덴 공군은 제2차 조달분 110기 가운데 14기를 2인승으로 하도록 발주하여 그 1호기가 첫비행한것인데 98년에 납품될 예정이다.

**2002년까지 철수
독일 주재 영국공군**

영국은 독일에 있는 영국 공군을 오는 2002년까지 전원 철수시키고 부뤼켄 공군기지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 기지에는 토네이도 GRI 전투공격 비행대 4개 비행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원 영국내 기지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영국의 긴급전개능력이 향상된 때문으로 이미 BAe 헤리어 GR-7기 2개 비행대는 철수했다. 이 사실은 영국 국방성이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알려진 것이다.

**치열한 판매전
헝가리, 전투기 도입에**

스웨덴제 경전투기 메이커인 SAAB-BAe합작팀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헝가리 공군의 노

후 전투기 대체 계획에 자기들이 만든 전투기를 팔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계획을 두고 스웨덴의 SAAB그리펜-

39 수출형을 제안하는 SAAB-BAe 합작팀과 F-16을 추천하는 록히드 마틴사가 격돌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은 F-16A/B형 중고기를 당장 납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 SAAB-BAe팀은 최종 조립라인을 가까운 곳으로 옮겨 납품에 지장없도록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고 한다.

**풍동시험 시작
꿈의 무인정찰기에**

미공군자재군단의 이놀드 기술개발센터(AEDC)는 약 900kg이 넘는 유폴하중을 가지며 22,400m 상공을 42시간이나 비행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그로벌 스타호의 풍동시험을 시작했다. 차세대 특수 정찰기로 개발중인 티어II 프러스는 12분의1 모형을 이용 풍동시험을 시작했다고 한다.

